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이사야 20:1-3
2026 년 1 월 25 일 오전 11 시

벗은 몸과 벗은 발

< 주여 도우소서 >

서울 지하철에는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정 레깅스 입고 계속 춤을 추는 1 호선 댄스녀, 단소를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학씨’를 남발하는 7 호선 단소남 등 소위 빌런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 년 동안 맨 발로 다니셨던 최춘선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그러한 부류로 여겨졌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전도지를 목에 걸고 엄동설한에도 맨 발로 다니며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의 기이한 차림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광인과 걸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헌데 알고 봤더니 일제 시대에 동경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였고, 김구 선생과 함께 활동한 독립운동가였으며, 김포 일대 수십만평의 땅을 피난민들과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남북통일을 염원하며 맨발로 전도자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맨발 뿐 아니라 맨몸으로 다녔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사야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Amoz)는 유다 왕 아마샤의 형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유다 왕 웃시야와 사촌 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촌인 웃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사야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왕족인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베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사 20:2). 왕족 출신 선지자가 벗은 몸으로 다닌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 구스와 애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사 18:1). 구스는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나라로 곤충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구스를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라고 묘사합니다.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사 18:2). 구스 안에서 나일강의 지류인 백나일과 청나일이 나일강 본류로 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스인들은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들로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용병이 많았습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달음질하여 가니”(삼하 18:21). 다윗과 요압의 부대에도 구스 사람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런 구스도 애굽이 강성할 때는 애굽에게 정복당하여 애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현대 이사야 시대에는 거꾸로 구스가 북쪽으로 진출하여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에 흑인 왕조를 세웠습니다. 애굽의 제 25 왕조인 쿠시 왕조로 애굽에 흑인 파라오가 등장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흑인 파라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때에 앗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사 37:9). 구스 왕 디르하가는 흑인 파라오로 구스와 애굽을 통치하였습니다.

역시 흑인 파라오인 디르하가의 아버지 샤카바는 애굽 전역을 통일하고 애굽을 다시 강대국 반열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등 주변 소국들과 반 앗수르 동맹을 맺었습니다. 구스와 애굽이 앗수르와 싸울 정도로 강성해지자 유다도 흔들렸습니다. 유다도 반 앗수르 동맹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 구스가 꺾혀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낮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꺾은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사 18:5-6).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한편, 앓수르는 앓수르를 배반하고 애굽과 구스와 동맹을 맺은 블레셋을 응징하였습니다. “앓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사 20:1). 앓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블레셋의 다섯 도시 국가 중 하나인 아스돗으로 보냈습니다. 다르단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관직 이름으로 군대 총사령관입니다. 앓수르의 다르단은 아스돗을 점령하였습니다. 이 때, 애굽과 구스는 아스돗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여전히 애굽과 구스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맨몸과 맨발로 다니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베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2 절).

이사야는 무려 3 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3 절). 고귀한 신분인 왕족이자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을 끌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사야를 따라 다니며 놀렸을 것이고, 사람들은 이사야가 미쳤다고 조롱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애굽과 구스의 미래에 대해 말이 아닌 삶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앓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불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4 절).

지금 이사야는 자발적으로 옷과 신발을 벗었지만, 애굽과 구스인들은 앓수르에 의해 옷과 신발이 벗겨지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 때에 유다는 놀랄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5 절). 5 절에서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때가 되면, 구스를 의지하고 애굽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한탄하고 탄식할 것입니다. “그 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앗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6 절). 이 탄식은 일차적으로는 해변 주민인 블레셋 사람들 입에서 나오지만, 이차적으로는 유다 사람들 입에서도 나올 말입니다.

이같이 이사야는 말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허나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구스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어도 사람들은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앗수르의 사르곤 왕이 죽자, 히스기야는 앗수르를 배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왕하 18:7). 히스기야는 개인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국가의 위기 앞에서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힘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행위 예언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구스와의 외교적 연대와 군사적인 도움을 기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사역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징조와 예표로 주어진 이사야의 삶을 보고서도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자 사람들은 이사야를 찾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두르고 여호와께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쉔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왕하 19:1-2).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 시대에서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최춘선 할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광인과 결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사람들은 최춘선 할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함’이 아니라 ‘사명’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를 맨발의 천사라고 부르며 할아버지의 삶을 본받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분명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로 전도할 수 있지만 삶으로 전도하는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전도가 당대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우리 삶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보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또렷이 증언하는 도구가 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